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모두 발언

2024. 3. 14.(목) 09:30
한국거래소 19F 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른바 “큰 손”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투자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의 3개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PE, 보험사와 증권사 등
각 부문의 기관투자자분들이 참석해주신 만큼,

기업 밸류업 방안과 관련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I.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배경

그간 정부는 ①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③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 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또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으며,
기업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시장과 소통하며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계획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세정지원, 공동IR 개최 등은 물론
세제지원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Ⅲ.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기관투자자 등 투자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 및 주주권 행사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입니다.

현재 4대 연기금을 포함해 222개 기관이 가입 중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모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ESG기준원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개정합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3),

개정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V.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더불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중입니다.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이 편입되도록 설계중입니다.

특히,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가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종목선정 기준안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중 지수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성종목 선정에 반영될 지표들은 적절한지,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기금·운용사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기관투자자분들의 의미있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V. 맺음말

정부 및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계, 투자자, 기업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이 발족(3.7.)되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며
준비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기업·투자자의 종합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